



국제개발협력본부, 조 세렐 게이츠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 면담

- AI 시대 보건·바이오 분야 다자협력 및 R&D 협력 확대방안 논의 -

□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(본부장 김진남)는 5월 6일(수) 서울에서 조 세렐(Joe Cerrell) 게이츠재단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만나 AI 기술을 활용한 보건·바이오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게이츠재단(Gates Foundation) :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자선단체로 국제 보건의료 체계 강화, 감염병 예방 및 퇴치, 교육 기회 확대 등 추진

□ 이 자리에서 김진남 본부장은 “한국 정부는 「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」을 통해 선진 공여국의 보건 ODA 축소 경향 속에서도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보건 ODA를 적극 추진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

○ 우리의 우수한 AI·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게이츠재단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예방, 백신 접근성 확대 등 국제 보건의료 형평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이에 조 세렐 총괄이사는 “국제보건 분야에서 AI 기술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건·바이오 협력에 우수한 AI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”고 말하였다.


○ 또한 그간 한국 정부가 감염병혁신연합(CEPI)*에 대한 자원 기여 등 국제보건기구와 협력해 온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백신 개발·보급을 추진 중인 CEP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* 감염병혁신연합(CEPI) : 신속한 백신 개발·보급을 위해 2017년 설립된 국제보건기구로 게이츠재단은 CEPI 설립 때부터 자원 기여 중이며 한국은 2020년부터 기여 중

○ 아울러 금년 하반기 게이츠재단 한국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글로벌 보건, AI 기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계를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.

□ 김 본부장은 국제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EPI 등 국제보건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, 한국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하였다.

< 조 세렐 대외협력 총괄이사 약력 >

사진	성명	직위	주요 경력
	조 세렐 (Joe Cerrell)	게이츠재단 유럽·중동· 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美 백악관 부대변인('93~'96) - 美 백악관 엘 고어 부통령 정책 보좌역('93~'96) - 글로벌 질병퇴치연구소 이사, 글로벌 시티즌 자문위원, 원 캠페인 이사('18~현재) - 게이츠재단 유럽·중동·동아시아 대외협력 총괄이사('01~현재)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전략과	책임자	과 장 이윤정 (044-200-2157)
		담당자	사무관 송동훈 (044-200-2158)